

## 추나의학 관련과목 개설현황 조사

박태용<sup>1</sup>, 신병철<sup>2</sup>

<sup>1</sup> 옥천군보건소 한방허브 사업팀

<sup>2</sup>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부

### Curriculum Analysis of Chuna Manual Medicine in Korea

Tae-Yong Park<sup>1</sup>, OMD., Ph.D., Byung-Cheul Shin<sup>2</sup>, OMD., Ph.D.

<sup>1</sup> Dept. of Oriental Hub Project, Okcheon-gun Health Center,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sup>2</sup> Division of Clinic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iculum of Chuna manual medicine (CMM)-related subjects in oriental medicine college and to let CMM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current curriculum and basic circumstance for CMM.

**Methods :** Questionnaire was obtained from 11 oriental medicine college and 1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by e-mail. If there was any insufficient information from response, we asked more information by direct call.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findings from our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are three CMM-related subjects, CMM,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ORM) and Neuromusculoskeletology(NMS). All curriculums of 8 colleges belonged to classification I, have CMM and ORM courses. Curriculums of 4 colleges belonged to classification II, have ORM or NMS course without CMM course.
2. 10 colleges of 11 ones which have ORM course, have major compulsory courses, 1 college has a major optional course. 5 colleges of 8 ones which have CMM course, have major compulsory courses, 3 colleges have major optional courses. 2 colleges have only part-time lecturers for CMM course, other 2 college have cooperation of specialized professors and part-time lecturers, another 8 colleges have only specialized professors.
3. Most CMM-related subjects are taught at 3 or 4 grade of medical course. The units taken for CMM-related subjects is minimum 4 units to maximum 8 units in total about 160 units.
4. Total class hour for CMM-related subjects is minimum 120 hours to maximum 225 hours, and practice hours is about minimum 30 hours to maximum 75 hours.
5. The systematic regulation an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for patients to get the best CMM treatment, because the present curriculum of CMM is insufficient for carrying out the best manual therapy for patients.

**Key words :** Chuna manual medicine, Curriculum analysi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ducation

### I. 서 론

허준『東醫寶鑑』에는 현대 추나학에 포함되는 도인, 안교, 안마 등 추나의 옛 명칭이 소개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東醫寶鑑』이 쓰여진 조선시대는 사회 분위

기가 신체의 노출이나, 남녀의 동석을 용인하지 않았고, 선비사상의 영향으로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추나요법이 그리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일제시대, 해방기 이후를 거치면서 수기요법은 의료행위라기 보다는 일부 시술자에 의해서 전

해오는 민간요법의 수준까지 전락하고 말았다<sup>23)</sup>.

이런 암흑기를 거쳐 한국 수기요법인 추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1년 12월 대한추나의학회가 처음으로 창립되고, 1992년 대한한의학회 추나분과학회로 공식으로 인증을 받으면서부터이다. 이후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전수되었거나, 그룹별로 연구하면 추나학이 공동 연구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고 경희대 한의과대학 등 많은 한의학대학에서 추나학을 강의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교수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추나학이 점차 발전해 감에 따라 한방재활의학에서는 추나의학을 포함시켜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며, 추나의학은 한방재활의학을 통해 보다 제도화된 교육의 틀로 유입 발전되었다. 이는 한방재활의학의 이전 교과서인 동의재활의학과학<sup>1)</sup>에는 수기요법의 일부로 전통 추나학을 소개하면서 수기 17법 정도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 교과서<sup>5)</sup>에서는 제7장에 정형 추나요법이라는 소단원을 두고 정의, 역사, 치료원리, 진단, 금기증 및 적응증, 각종 치료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추나학이 한방재활의학 강의에서 일부 소개되어 강의되면서, 임상 한의사 및 일반인에게서 추나라는 이름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추나학 명칭으로 독자적인 강의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적으로, 교육과 제도적 여건상으로 추나학이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로컬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추나학은 임상적 발전을 이뤄나갔다<sup>6)</sup>. 이러한 추세는 한의학계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2005년과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환자조사 보고서<sup>7,8)</sup>에 의하면 한방의료기관 외래환자에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한방병원 전체환자의 3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한의원 전체환자의 46% 수준에서 55% 수준으로 비중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고, 추나의학은 이 근골격계 환자치료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나의학은 점차 한의학 치료 범주 내에서 계속 그 점유영역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치료에 있어 환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추나학의 현재위치를 잘 살펴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크게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추나의학 관련과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한의학에서 추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 글을 쓰는 바이다.

## II. 본 론

### 1. 연구방법

척추신경추나의학회([www.chuna.or.kr](http://www.chuna.or.kr))의 협조를 얻어 2009년 3월 19일 전국 11개 대학과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학과장 또는 원장께 이메일로 추나의학 관련과목 개설현황 조사 협조요청서를 보내 Fig. 1.(Appendix)과 같은 서식 작성률을 의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회신하였다. 아래 작성된 서식을 토대로 각 학교별 추나의학 관련과목 개설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작성된 서식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각 학교 담당자와 직접 전화 연락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2. 연구결과

#### 1) 추나의학 관련과목 강의명칭 개요조사

추나관련 과목은 추나학, 한방재활의학, 근골격학 등 3가지가 있었다. 추나학 과목으로 이론 및 실습 강의를 단독으로 개설한 학교는 분류 I로, 추나학이란 과목으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한방재활의학이

나 근골격학으로 강의에 추나학이 일부로서 포함되는 학교는 분류 II로 나타내었다. 이에 분류 I에는 8개 학교가, 분류 II에는 4개 학교가 있었다. 분류 I의 8개 학교는 추나학과 한방재활의학 과목이 모두 개설이 되어 있었으며, 분류 II의 4개 학교 중 3

개는 한방재활의학 강의만, 1개는 근골격학 강의만 개설되어 있었다(Table I).

또한 개설된 강의과목 명칭에 추나학 및 실습 또는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등과 같이 추나의학과 관련된 강의 과목 명칭에 독자적으로 '실습' 명칭이 들어가

Table I. 추나의학 관련과목 강의명칭 개요조사

학교	개설과목명칭	추나학 이론 또는 실습강의 개설여부	추나학이 재활의학 또는 근골격학 범주에 포함되어 개설	추나학 실습의 독자적 존재 여부
분류 I				
경희대	추나학 추나학 및 실습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		○
경원대	추나학 1,2 한방재활의학 1,2,3,4 임상실습 2,3	○		
동의대	추나학 1,2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		○
동신대	추나학 및 실습 한방재활의학 임상실습	○		○
대구 한의대	재활의학 및 임상실습 1,2,3,4 추나학 및 실습	○		○
분류 II				
대전대	추나학 한방재활의학 1,2,3,4 임상실습 1,2,3,4	○		
우석대	추나학 및 실습 1,2 한방재활의학 임상실습 2,3	○		○
원광대	추나학 한방재활의학 1,2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1,2	○		○
분류 III				
부산 한의전	근골격학 1,2 필수임상실습 1,2		○	
동국대	한방재활의학 1,2 한방재활의학 실습 1,2		○	○
상지대	재활의학과학 및 이학요법 재활의학과학 및 물리요법 필수임상실습 1,2		○	
세명대	재활의학과학 재활의학임상실습		○	○

서 강의 개설이 된 학교가 총 8개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한방과목에 대한 임상실습의 일부로서 한방재활의학, 추나학 등이 포함되는 학교는 총 4개가 있었으며, 이들 학교는 임상실습 중 일부로 추나 실습 강의가 이뤄졌다(Table I).

## 2) 추나의학 관련과목의 전공필수 여부, 시간강사/전임교수 여건조사

분류 I의 8개 대학은 모두 추나학과 한방재활의학을 병행해서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이 중 한방재활의학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전공필수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다. 분류 I의 8개 학교 중 5개 학교는 추나학을 전공필수로 배정했으며, 이 중 1개 대학이 유일하게 전임교수 없이 시간강사만으로 추나학 강의가 이뤄지고 있었고, 나머지 4개 학교 중 3곳은 전임교수로 강의가 이뤄졌고, 그 외 1개 학교는 전임교수가 이론 강의를 시간강사가 실습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류 I의 3곳 대학은 추나학이 전공선택으로, 나머지는 5곳 대학은 전공필수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Table II).

분류 II로 배정된 4개의 대학 중에 근골격학, 한방재활의학 등 추나관련 과목은 모두 전공필수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 4곳의 대학이 모두 전임교수가 강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1곳의 대학만이 전임교수와 시간강사가 병행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Table II).

## 3) 추나의학 관련과목 강의의 대상학년과 이수 학점

분류 I의 8개 학교 중 추나학 또는 추나학 실습 강의는 본과 2학년에 1개 대학, 본과 3학년에 4개 대학, 본과 4학년에 3개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분류 II에 속하는 4개 대학 중 학제가 다른 부산대 한의전을 제외하고 추나의학 관련과목인 한방재

활의학 과목의 이수는 모두 본과 3, 4 학년에 이뤄지고 있으며, 부산대 한의전도 3학년과 4학년에 근골격학 과목의 강의가 이뤄지고 있었다(Table III).

분류 I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서 추나라는 명칭이 삽입되어 개설된 강의는 1학점 3개 대학, 2학점 4개 대학, 4학점 1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분류 I의 8개 학교 중에서 한방재활의학이라는 명칭이 삽입되어 개설된 강의는 4학점 4개 대학, 5학점 3개 대학, 5.5학점 1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분류 II의 4개 학교 중에서 근골격학 강의는 4학점, 한방재활의학이라는 명칭이 삽입되어 개설된 강의는 4학점 2개 대학, 6학점 1개 대학으로 나타났다(Table III).

추나의학 관련과목의 총 이수학점이 10점을 넘는 6개 대학(경원대, 대전대, 우석대, 부산대 한의전, 상지대, 동신대)의 경우는 별도로 추나학 실습 또는 한방재활의학 실습 과목이 없이, 여러 과목에 대한 임상실습 강의에 추나학 관련 실습강의가 일부 포함되어 이뤄져 학점 배정이 높게 나왔다. 이는 임상실습 강의가 모두 추나의학 관련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추나 강의가 포함되어져 있을 뿐임을 염두해야 한다.

## 4) 추나의학 관련과목 총 강의시간, 이론 실습 비율조사

추나관련 과목의 총 강의시간 및 이론과 실습 강의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임상과목과 합쳐져서 임상실습 과목 중 일부로 추나학 실습이 있는 6개 대학(경원대, 대전대, 우석대, 부산대 한의전, 상지대, 동신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추나관련 실습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들 6개 학교를 제외한 6개 학교를 산정대상으로 잡았다.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된 6개 학교는 최소 120시간 강의에서 최대 225시간 강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100이상 150미만의 강의시간이 1곳, 150이상 200미만 강의시간이 4곳, 200이상 강의

Table II. 추나의학 관련과목의 전공필수 여부, 시간강사/전임교수 여건조사

학교	강의명칭	전공필수/ 전공선택	추나관련 강의 전임교수/시간강사 여건	시간강사 비율 (%)
분류	추나학			
I 경희대	추나학 및 실습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전공필수	전임교수 1 시간강사 2	66
경원대	추나학1,2 한방재활의학1,2,3,4 임상실습2,3	전공필수	전임교수 1	0
동의대	추나학1,2 한방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전공필수	전임교수 1	0
동신대	추나학 및 실습 한방재활의학 임상실습	전공필수	시간강사 1	100
대구	재활의학 및 임상실습1,2,3,4	전공필수	전임교수 2	0
한의대	추나학 및 실습			
대전대	추나학 한방재활의학1,2,3,4 임상실습1,2,3,4	전공선택	전임교수 4	0
우석대	추나학 및 실습1,2 한방재활의학 임상실습2,3	전공선택 전공필수	시간강사 1	100
원광대	추나학 한방재활의학1,2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1,2	전공선택 전공필수	전임교수 1	0
분류	부산	근골격학1,2		
II 한의전	필수임상실습1,2	전공필수	전임교수 1	0
동국대	한방재활의학1,2 한방재활의학실습1,2	전공필수	전임교수 1	0
상지대	재활의학과학 및 이학요법 재활의학과학 및 물리요법 필수임상실습1,2	전공필수	전임교수 1 시간강사 1	50
세명대	재활의학과학 재활의학임상실습	전공필수	전임교수 2	0

Table III. 추나의학 관련과목 이수학년 및 학점조사

학교	강의명칭	시행학기수	수업학년	학점	추나관련과목 총이수학점	학과 총이수학점 (예과/본과)
I 경희대	추나학	1	본3	1학점	7학점	75/167.5
	추나학 및 실습	1	본3	1학점		
	한방재활의학	2	본4	1학점*2=2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2	본4	1.5학점*2=3		
경원대	추나학1,2	2	본4	1학점*2=2	16학점 (6학점)	78/160
	한방재활의학1,2,3,4	4	본3,4	1학점*4=4		
	임상실습2,3	2	본4	5학점*2=10		
동의대	추나학1,2	2	본3	1학점*2=2	6학점	80/160
	한방재활의학	2	본3	1학점*2=2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2	본4	1학점*2=2		
동신대	추나학 및 실습	1	본4	2학점	11학점 (7학점)	80/160
	한방재활의학	3	본3,4	2학점2회, 1학점1회		
	임상실습	2	본3,4	2학점*2=4학점		
대구 한의대	재활의학 및 임상실습1,2,3,4	4	본3,4	1학점*4=4학점	5학점	80/160
	추나학 및 실습	1	본3	1학점*1=1학점		
대전대	추나학	1	본2	1학점	16학점 (6학점)	80/160
	한방재활의학1,2,3,4	4	본3,4	2학점 + 3학점 = 5학점		
	임상실습1,2,3,4	2	본3,4	10학점		
우석대	추나학 및 실습1,2	2	본3	2학점*2=4학점	18학점 (8학점)	80/160
	한방재활의학	4	본3,4	1학점*4=4학점		
	임상실습2,3	2	본4	5학점*2=10학점		
원광대	추나학	1	본4	1학점*1=1	6.5학점	80/160
	한방재활의학1,2	2	본2,3	1학점*1 + 1.5학점*1 = 2.5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1,2	2	본4	1학점*1 + 2학점*1 = 3		
II 부산 한의전	근골격학1,2	2	3	2학점*2=4학점	25학점	172학점
	필수임상실습1,2	2	3,4	7학점*1 + 14학점*1 = 21학점 (4학점)		
	한방재활의학1,2	2	본3	1학점*2=2	4학점	80/160
	한방재활의학실습1,2	2	본4	1학점*2=2		
상지대	재활의학과학 및 이학요법	2	본3	1*2=2학점	19학점 (4학점)	92/181
	재활의학과학 및 물리요법	2	본4	1*2=2학점		
	필수임상실습1,2	3	본3,4	5*3=15학점		
세명대	재활의학과학	4	본3,4	1*4=4학점	6학점	80/160
	재활의학임상실습	2	본4	1*2=2학점		

\* 총 이수학점에서 괄호안은 다른 과목을 포함한 포괄적 임상실습의 해당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추나 관련과목의 학점만을 더한 것이다.

시간이 1곳에 해당되었다. 이론과 실습 강의의 비율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로 나누어 계산을 했으며, 4곳은 강의시간 기준 이론실습 비율과 학점기준 이론실습 비율의 값이 서로 일치했으나, 2곳은 강의시간 기준 이론실습 비율과 학점기준 이론실습 비율 값의 계산이 서로 달랐다(Table IV). 대체적으로 이론 강의와 실습강의 중에서 이론 강의의 비중이 높았으며 실습강의의 비중이 이론 강의보다 높았던 곳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론과 실습강의의 비율은 1:1로 동일한 곳이 2개 대학이 있었으며, 이론강의가 실습강의보다 2배 이상 많은 대학은 3곳, 이론 강의가 실습강의보다 1배이상 2배미만 이었던 곳은 1곳이 있었다(Table IV).

### III. 고 칠

추나요법은 한의학 경전인 『黃帝內經』 등에 기록된 도인·안교에서 유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치료법으로서 근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 경혈(각종 반사점 포함)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 수동운동 및 능동 운동을 통하여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 등을 포함하는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를 가리킨다<sup>[29-14]</sup>. 추나의학은 크게 정골추나, 경근추나, 도인추나로 나뉘며 이 세 가지 추나의 범주에 서양의 대표적 수기요법인 chiropractic, osteopathy, physiotherapy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sup>[5]</sup>.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서양의 세 가지 수기요법을 제외한 각종 수기요법도 기능적으로 분류할 경우, 모두 정골·경근·도인 추나의 범주 안에서 망라될 수 있다.

이렇게 추나학이 세 가지 범주 안에 각종 수기요법

을 흡수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고, 임상치료에 있어서 추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sup>[16,17]</sup>, 대중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추나학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추나의학 관련과목 개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좋은 점은 계승해서 미래에 보다 나은 추나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추나의학 관련과목은 크게 추나학, 한방재활의학, 근골격학 3가지가 있었다(Table I). 추나학은 정골 추나, 경근추나, 도인추나 등 추나와 관계된 강의만을 하는데 반해, 한방재활의학과 근골격학은 근골격학, 한방이학요법, 자연의학요법, 관절·척추·마비 질환 등을 포함해서 강의가 이뤄지고 그 일부로써 추나학 강의가 존재하였다. Table I의 분류 I에 속하는 8개 학교는 교육과정에 추나학과 한방재활의학과목이 모두 존재했다. 이는 분류 I에 속하는 학교가 추나란 이름으로 정규강의를 개설하고, 추나의학 관련과목인 한방재활의학에서도 강의가 이뤄짐으로써 분류 II에 속하는 4개의 학교보다 추나학 교육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추나의학 관련과목(추나학 및 실습,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으로 독자적 실습강의가 존재한 곳은 8개 학교이었고, 그 중 4개의 대학은 추나란 명칭으로 실습강의가 존재했다. 다만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나머지 11개 대학과는 다른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Table II를 보면 한방재활의학 강의가 개설된 총 11개의 대학 중, 한방재활의학 강의가 전공선택으로 분류된 곳은 1곳이었으며, 나머지 10곳은 모두 전공필수로 분류되어 있었고, 추나학 강의가 개설된 8개의 대학 중에서 5개의 대학은 전공필수로 3개의 대학은 전공선택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근골격학으로 강의가 개설된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1곳도 전공필수로 학제가 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추나 관련 과목 강의는 2개 대학은 시간강사만으로 이뤄

Table IV. 추나의학 관련과목 총 강의시간, 이론 실습 비율조사

학교	강의명칭	주당 수업시간	시행 학기수	총 강의시간	이론 실습 비율(강의 시간기준 /학점기준)
분류 I 경희대	추나학	2시간	1	2시간*15=30시간	
	추나학 및 실습	3시간	1	3시간*15=45시간	225시간 7대3
	한방재활의학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67.5시간) 5대2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3시간	2	3시간*15*2=90시간	
경원대	추나학1,2	1시간	2	1시간*15*2=30시간	
	한방재활의학1,2,3,4	2시간	4	2시간*15*4=120시간	— N.C.
	임상실습2,3	20시간	2	20시간*15*2=600시간	
동의대	추나학1,2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한방재활의학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180시간 5대1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30시간) 5대1
동신대	추나학 및 실습	3시간	1	3시간*15=45시간	
	한방재활의학	3시간2회,2시간1회	3	3시간*15*2=90시간, 2시간*15*1=30시간	— N.C.
	임상실습	4시간	2	4시간*15*2=120시간	
대구 한의대	재활의학 및 임상실습1,2,3,4	2시간	4	2시간*15*4=120시간	150시간 1대1
	추나학 및 실습	2시간	1	2시간*15=30시간	(75시간) 1대1
대전대	추나학	2시간	1	2시간*15=30시간	
	한방재활의학1,2,3,4	3시간1회,2시간1회,	4	3시간*15+2시간*	
	1시간2회			15+1시간*15*2=105시간	— N.C.
	임상실습1,2,3,4	4시간2회, 16시간1학기2회	2	4시간*15*2+ 16시간*15*2=600시간	
우석대	추나학 및 실습1,2	4시간	2	4*15*2=120시간	
	한방재활의학	2시간	4	2*15*4=120시간	— N.C.
	임상실습2,3	20시간	2	20*15*2=600시간	
원광대	추나학	2시간	1	2시간*15=30시간	
	한방재활의학1,2	2시간1회,3시간1회	2	2시간*15+3시간*15=75시간	195시간 (45시간) 10대3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1,2	2시간1회,4시간1회	2	2시간*15+4시간*15=90시간	10대3
분류 II 부산 한의전	근골격학1,2	2시간2회	2	2시간*15*2=60	— N.C.
	필수임상실습1,2	7시간1회,14시간1회	2	7시간*15+14*15=315	
	한방재활의학1,2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120시간 1대1
	한방재활의학실습1,2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60시간) 1대1
상지대	재활의학과학 및 이학요법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재활의학과학 및 물리요법	2시간	2	2시간*15*2=60시간	— N.C.
세명대	필수임상실습1,2	12시간	3	12시간*15*3=540시간	
	재활의학과학	2시간2회,1시간2회	4	2시간*15*2+1시간*15*2=90시간	150시간 3대2
	재활의학임상실습	2시간2회	2	2시간*15*2=60시간	(60시간) 2대1

\* 총 강의시간=주당 수업시간×수업시행 학기수×15, 15는 한 학기당 보통 15주의 수업이 있음을 감안해서 계산했음.

\* 총 강의시간 항목의 괄호안의 시간은 이론 대 실습 비율을 통한 계산한 실습 강의시간 수를 나타낸다. 실습 강의시간 수=총 강의시간×이론 실습 비율.

\* 추나학 및 실습, 한방재활의학 및 실습은 학점기준이나 강의시간 기준으로 이론 대 실습시간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1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방재활의학실습과 같이 실습만을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는 모든 학점과 강의시간을 실습으로만 계산하였음. 예를들면 추나학 및 실습 강의가 2학점인 경우 이론 강의 1학점 실습 강의 1학점으로 계산했으며, 이 강의의 강의시간이 2시간인 경우 이론강의 1시간, 실습강의 1시간으로 계산을 했음.

\* N.C. = not possible to count.

지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시간강사는 없이 전임교수로만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추나학을 실습하고 가르치는 전임교수의 수는 대다수 대학에서 한 명을 넘지 않는 곳이 많았고, 시간강사를 병행하는 곳이 2곳이 있었다.

추나학은 관절가동 저항점 이후 강한 수동적 운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진단, 수기 및 동작으로 잘못된 치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추나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추나의학 관련 과목에 대한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은 가능한 없거나 혹 부득이한 경우라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추나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는 전임교수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고, 전임교수의 숫자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III을 보면 추나의학 관련과목은 종합 응용 임상과목이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본과 3, 4년에 강의를 하고 있었다. 이는 추나학 학문의 특성상 기초적 지식, 임상적 지식과 경험, 통합적 지식을 동원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로 부작용이 없는 시술을 해야하는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4년제 학제<sup>18)</sup>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적 관찰 및 실습이 중시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2-3개의 대학의 학제를 뺀 대다수 학교는 대체적으로 한의예과에서는 교양과목까지 합쳐 80학점이 필수 이수학점이며 한의학과에서는 160학점이 필수 이수학점인 것으로 나와 있다 (Table III). 이 중에서 추나의학 관련과목은 최저 4학점에서 최고 8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니 전공강의가 중심이 되는 한의학과 160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추나의학 관련과목이 전체학점 중에서 대략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2.5%에서 5% 정도로 파악이 된다.

포괄적 임상실습 강의에 추나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정확한 실습강의 시간을 파악할 수 없는 6개 대학

을 제외한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추나관련 과목 강의시간은 최소 120시간에서 최대 225시간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의과 대학의 학제만으로 추나학에 숙련된 기술을 갖는 것은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학생들이 기술적 숙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기치료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한 적절하고 정확한 기술이 시현되지 않는다면 임상의학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학문이 되고 만다. 그렇기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임상경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WHO 권고사항 학제<sup>18)</sup>를 통해 총 강의시간 기준으로 유추했을 때 나오는 이론/실습 강의 비율은 약 2:1 이었다. 그런데 추나학 관련해서 이론/실습의 강의 비율이 5:1과 10:3 등으로 약 2:1의 비율에 못 미치는 학교도 있었다 (Table IV). 즉, 현재 실습강의의 비율이 임상적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므로 좀 더 추나학 관련 실습강의의 비중이 각 대학 교과과정에서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헌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적절하지 못한 수기치료로 인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발생시킨 부작용이 15건이 보고<sup>19)</sup>되고 있고,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환자 입장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환자가 보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비교적 낮은 발생율을 지라도 추나에 관련한 부작용이 없는, 환자 중심의 추나치료를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V. 결 론

전국 11개 대학과 1개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통해 추나의학 관련과목 개설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추나의학 관련과목은 추나학, 한방재활의학, 근골격학 3가지가 있었으며, 추나의학으로 과목명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한방재활의학 강의가 개설된 총 11개 대학 중 10곳은 전공필수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1곳은 전공선택이었다. 추나학 강의가 개설된 8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전공필수로, 3개 대학은 전공선택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추나학 강의가 전임교수 없이 진행되는 학교가 2곳,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병행으로 이뤄지는 곳이 2곳 있었고, 나머지는 8개 학교는 모두 전임교수가 배정되어 있었다.
3. 대다수 추나의학 관련과목은 본과 3, 4년에서 강의가 이뤄졌으며, 총 학점이 대략 160학점 정도 되는 가운데 이수학점은 최저 4학점에서 최고 8학점 정도를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추나의학 관련과목의 총 강의시간은 최소 120시간에서 최대 225시간 이었고, 실습강의는 대략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75시간으로 나타나, 이론과 실기교육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5. 환자 중심의 추나치료를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정규과목의 이수에 더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및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추나의학 관련과목에 대한 개설현황 조사를 통해 상기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추나학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도움을 얻어 설문 진행되었으며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 V. 참 고 문 헌

1. 한진수, 김대형, 박성식. 오장경락의 양생도인 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0;4(2):63-97.
2. 신준식. 한국추나학. 서울:대한한의학회추나분과학회부설출판사. 1995:18.
3. Available at: <http://www.chuna.or.kr/01/02.php>.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07, 2009.
4. 전국한의과대학재활의학과교실. 동의재활의학 과학. 서울:서원당. 1999:415-32.
5.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서울:군자 출판사. 2005:245-311.
6. Available at: [http://www.jaseng.co.kr/menu/itr/itr\\_3/itr\\_1/Read.asp](http://www.jaseng.co.kr/menu/itr/itr_3/itr_1/Read.asp).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08, 2009.
7.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보고서. 서울:보건복지부. 2005:104-26.
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보고서. 서울:보건복지부. 2008:84-99.
9. Available at: <http://www.chuna.or.kr/01/01.php>.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 07, 2009.
10. Smith AR Jr. Manual therapy: the historical, current, and future role in the treatment of pain. *ScientificWorldJournal*. 2007;7:109-20.
  11. Vickers A, Zollman C. ABC of complementary medicine. The manipulative therapies: osteopathy and chiropractic. *BMJ*. 1999;319(7218):1176-9.
  12. Available at: <http://www.bridgetohealth.co.uk/2008/11/whats-the-difference-between-osteopathy-physiotherapy-and-chiropractice/>.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08, 2009.
  13. Available at: [http://www.cityclinic.com.au/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 w&id=13&Itemid=27](http://www.cityclinic.com.au/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 w&id=13&Itemid=27).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08, 2009.
  14. Available at: <http://www.nsmi.org.uk/articles/physiotherapy/physiotherapy-difference.html>.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08, 2009.
  15. 신병철, 신준식, 이종수, 임형호 공저. 정형 추나의학. 서울:최추신경추나의학회. 2006:57-9.
  16. Available at: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91650>.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10, 2009.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설적. Available at: <http://www.hira.or.kr/common/dummy.jsp?pgmid=HIRAF01030200000>. Accessibility verified November 10, 2009.
  18. WHO Library Cataloguing-in-Publication Data. WHO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 in chiropractic.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1-17.
  19. 김기병, 박태용, 이정한, 공재철, 이수경, 신병철, 권영달, 송용선. 추나요법을 포함한 수기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문헌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8;18(4):103-20.